

지역 매 아리

김제시, 국가정책사업분야
업무추진위해 공무원 출원

김제시는 지난 8일 국가정책사업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공무원을 출
원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공무원 정원을 현행 1023명
에서 1049명으로 늘리는 '김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인력충원은 국가정책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이 부족한 현안
부서 충원으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차매안심센터 운영,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주소체계고도화,
지방세소득세 지자체 신고 민원처리 등
이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제출한 뒤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은 '인구는 감소
하는데 공무원정원을 늘리려는 부정적
의견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국
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
피하게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주민
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서상원)에서는 9
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명을 대
상으로 혹서기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혹서기(7~8월) 폭염
기간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가 노인이면서 공원놀이 등 공공시설
봉사 사업임을 감안하여 안전교육에 중
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서상원 성덕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
가오는 혹서기 폭염 기간에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
라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
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
는 20명은 앞으로 7~8월 혹서기에는
성덕면 일원에서 환경정비와 실버발래
방 사업에 투입되어 주3회 월 20시간을
일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역일자리 창출 협력 강화

완주군-고용부, 업무협약 체결 정책공모전 개최·로컬 잡 센터 활성화 등

완주군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손잡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9일 완주군은 완주군수실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지역 일자
리 창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일
자리 정책 공모전 공동개최 ▲완주
군 로컬 잡(JOB: 일자리) 센터 활성
화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고용, 산업, 경제, 문화, 교통,
사회복지 등 완주군의 현황과 특성
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발굴
을 위해 '제1회 완주군 일자리 정책
발굴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대
1천만원(대상)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주지청과 함께 운영 중인
'완주군 로컬 잡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내일 채용공제 이동상
담', '농가 계절일자리 매칭' 등을
실시해 접근성이 부족한 농산촌의
구직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완주군의 우
수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확산하고,
지역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긴밀하
게 협력할 예정이다.

정영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는 완주군과
지역 일자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
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 일자
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
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주지청의 관
심과 지원을 통해 민선6기와 지난해
일자리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
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
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0월 4일
'완주군 로컬 잡 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2월 11
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월 25일 '농촌지역 고용
노동서비스 지원강화 협약'을 체결
한데 이어 이번 협약을 체결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
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김제시를 방문하여 전국기획사업비 1억원을 전달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적 모델화 추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제시에 전국기획사업비 전달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마을단위 통합 돌봄 협동화사업 선정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
수)는 9일 김제시를 방문하여 전국
기획사업비 1억원을 전달했다.

사업비 전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주관으로 추진한 전국기획사
업 공모에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권영세)이 '마을단위 통합 돌
봄을 위한 협동화사업' 분야에 선정
되어 지원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
봄계획(커뮤니티케어)의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을 지원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
록 전방위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김제시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적 모델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
으며 지역기반 인프라구축, 지역확
제, 주민목구해소를 위한 주민자치화

립, 농촌지역 마을소멸에 대응하는
마을재생사업,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통합돌봄, 거점지역 공유공간
을 활용한 마을사무소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장은 "고령화, 생산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 중심
의 민관협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인 돌
봄, 주거, 자치 등 지역기반형 협력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경제도
약, 정의로움 김제 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나가기"고
전했다. 올해 추진되는 '지역기반형
커뮤니티케어 모델화사업'은 연간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고, 연차별 사
업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총 3억원
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중심의 열린 현장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

허전 선임김제시 부시장 취임



허전 전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장
이 7월 1일자로 김제시 부시장으
로 취임하여 각 실과소를 방문하
며 직원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취
임식을 갈음하고 곧바로 현안 업
무에 돌입했다.

부안군 출신의 허전 부시장은
1986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어 익
산시 동산동장과 투자유치과장,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관광산업팀
장, 지역경제과 건설행정팀장 등

을 역임했
으며, 이후 전
라북도 문화
관광재단과
중국사무소
과건 임무를
수행했다.

허전 부시장은
"민선 7기
2년차에 돌입
하는 중요한 시기에 30여년 간 공
직생활을 토대로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중심의 열
린 현장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박준
배 김제시장을 중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김제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경제도약, 정의로움 김
제'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
짐했다.

한편 허전 부시장은 김제경찰
서, 김제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방문하고 지난 토
요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현장 참여 등 현장행정 추진
및 현안 사업과 업무 등을 파악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모악회, 양파 팔아주기 운동 참여 홍보

김제시 기관·사회 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김제시장 박준배)는 9일
김제시청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현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 최현규 농업경영
인 회장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양
파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
하였다.

모악회에서는 농협 김제시지부, (주)
농산, 전북은행 김제지점, 김제시청
등이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하였

으며, 향후 모악회
회원단체의 임·직
원에게 양파 팔아주
기 운동 참여를 적
극적으로 홍보하기
로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모악회의 설립 이
념 중 하나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파 팔아주기 운동
에 동참해주신 모악회원에게 깊은 감
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김



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열대저세미나방' 예찰 강화 나서

완주군이 국내 처음으로 비래 검역
병해충 '열대저세미나방'에 대한 예
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9일 완주군은 지난달 제주도 옥수수
재배 포장 4곳에서 열대저세미나방이
발견된 이후 고창에서도 발견됨에 따
라 13개 팀, 26명의 활동 요원을 편성
해 7월 말까지 중점 예찰 강화를 실
시한다고 밝혔다.

열대저세미나방은 열대지방이 원산
지인 검역 관리급 해충으로, 유충시기
에 작물의 잎과 줄기에 해를 끼쳐 피
해를 발생시키며 번식속도가 빠른 것
이 특징이다. '검역병해충'이란 잠재
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열대저세미나방은 옥수수, 수
수, 벼 등 약 80여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알부터 성충까지 44일의 발육기
간을 가지고 200~300개의 알을 산란
하며 산란된 기간에 수km에서 심지어
100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혀져
있다. 국내에서 발생된 열대저세미나
방은 유충일 때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등록된 약제로 신속히
방제를 해도 애벌레 발육 단계에 따
라 약효가 다를 수 있으니 조기 예찰
을 통해 애벌레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장혁 식량지원팀장
은 "옥수수, 수수 재배농가는 의심개
체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063-290-
3302)로 즉각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